

사시 환자의 수술 전 기대와 두려움 및 술 후 일상생활로의 복귀 과정에 관한 연구

김중훈 · 김승현 · 조윤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목적: 사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전 가지게 되는 기대와 두려움 및 수술 후 환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사시 수술을 받은 지 1개월 이상 되는 85명의 소아 환자 및 보호자와 성인 환자에게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분석하였다.

결과: 77%의 환자 및 보호자가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한 번의 수술로 완치될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재발에 대해 가장 두려웠다고 60%에서 대답하였다. 가림치료에 대해서는 58%의 환자들이 수술 후 2주에서 1개월까지 가림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수술 직후 직장 및 학교 등에서의 성취도가 수술 전에 비해 75-100% 정도였다는 응답이 83%로 가장 많았고 성취도가 떨어진 이유는 가림치료로 인한 안대 착용이라는 응답이 61%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58%에서 수술 후 1주에서 2주 사이에 성취도가 수술 전과 같아졌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수술 전 재발 가능성에 대한 바른 설명이 환자 및 보호자의 수술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잘못된 기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시 수술 후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1주에서 2주 이내에 가능하였다.

〈대한안과학회지 2012;53(3):440-445〉

사시수술은 외관상으로 보기 좋은 정렬된 눈을 만들 뿐만 아니라 시력을 발달시키고 복시를 교정하며 환자가 양안단일시를 획득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¹ 안구의 정렬을 포함한 외관상의 모습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사시와 같은 외관상의 결점이 타인에 의해 인지될 수 있을 정도로 심하다면 그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고, 특히 십대 및 성인에 있어서의 사시는 개인의 자존감과 자신감 및 대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²⁻⁶ 따라서 사시 수술은 미용적, 기능적 효과 외에, 밝은 성격과 자신감 있는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⁵

반면 사시수술은 재발이나 과교정 등으로 여러 번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흔하고 사시 수술 후 환자들은 일시적인 복시와 결막 충혈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의 가림치료를 하게 된다. 저자들은 사시

수술 자체가 소아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 환자에 있어서 술후 일시적이나, 다양한 심리사회적(psychosocial)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문제가 수술 전의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시 수술을 받은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 전 가지게 되는 기대와 두려움에 대해 알아보고, 수술 후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과정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09년 1월에서 2010년 7월까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및 안산병원 안과에서 술 전 수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한 명의 술자에게 사시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사시 수술을 받은 후 1개월 이상 추적 관찰된 85명의 환자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사시 이외에 다른 안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와 연구 진행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힘들고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 및 보호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8세 이상 되는 환자를 성인 환자로, 18세 미만의 환자를 소아 환자로 분류하였다. 성인 환자에게는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였고 소아 환자에 있어서는 아이와 부모가 같이 상의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작성 전 동일한 연구 진행

■ 접수 일: 2011년 2월 23일 ■ 심사통과일: 2011년 6월 10일
■ 게재허가일: 2012년 2월 1일

■ 책임저자: 김 승 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안과
Tel: 031-412-5160, Fax: 031-414-8930
E-mail: ansaneye@hanmail.net

* 본 논문의 요지는 2010년 대한안과학회 제104회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되었음.

자가 성인 환자와 소아 환자의 부모에게 설문지의 질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11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성인용 설문지와 소아용 설문지로 나누어 배부하였다. 6문항은 성인 환자와 소아환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었고 나머지 5문항은 성인 환자와 소아 환자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되었으며 동일한 연구 진행자가 각각의 설문지를 확인 후 분석하였다(Appendix).

결 과

본 연구에 포함된 전체 85명 중 25명(29.4%)이 성인 환자였고 60명(70.6%)이 소아 환자였다. 전체 환자 중 남자와 여자는 각각 47명(55.3%)과 38명(44.7%)이었고, 수술 전 진단 받은 사시 유형은 외사시가 48명(56.5%), 내사시가 30명(35.3%), 상사시가 7명(8.2%)이었다. 수술 후 설문 조사를 시행한 시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9.5개월이었다.

수술 전 수술 결과에 대한 기대치

한 번의 수술로 완치될 것을 기대한 환자가 77%로 가장 많았고 2회 정도 수술 후 완치를 기대한 환자는 16%였으며 5%의 환자가 수술로 사시가 완치되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Fig. 1).

수술 전 수술에 대한 설명 후 가장 두려웠던 점

수술 후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60%로 가장 많았고 26%의 환자가 과교정이 가장 두렵다고 답하였으며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이 가장 두렵다고 한 환자는 6%였다(Fig. 2).

수술 후 집 혹은 학교생활 및 직장 생활에서의 성취도

수술 전과 비교하여 수술 후 성취도 변화에 대해서는 평소의 75-100%로 성취도가 감소하였다는 대답이 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평소의 25-50%였다는 대답은 5%, 4%의 환자는 수술 전과 다름없었다고 대답하였다(Fig. 3).

성취도가 떨어진 이유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성취도가 떨어졌다고 대답한 96%의 환자에서 성취도가 떨어진 이유에 대하여 수술 후 안대 착용 때문이라는 대답이 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복시 때문이라는 대답은 21%였으며 수술 부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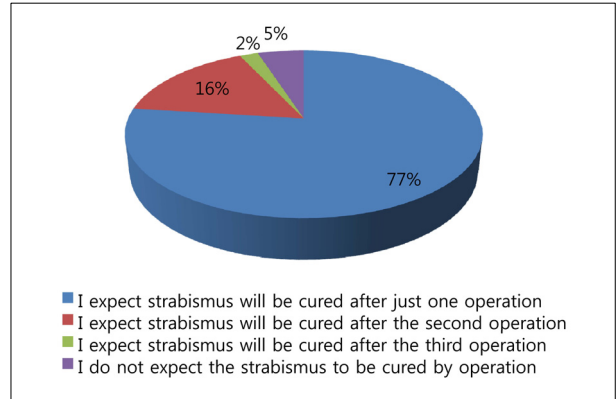


Figure 1. Expectations about the operation before strabismus surg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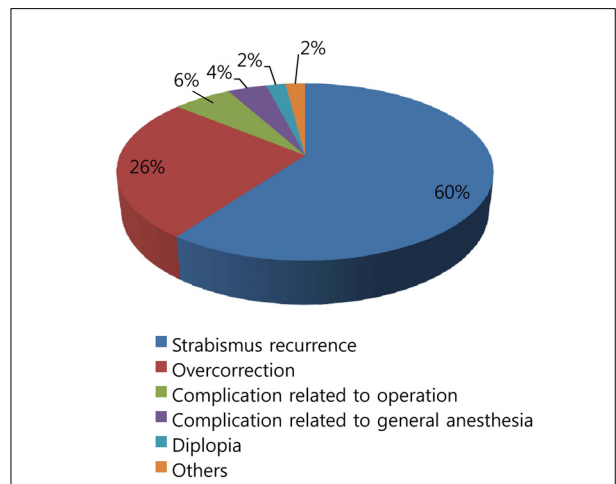


Figure 2. The major concerns of patients before receiving strabismus surg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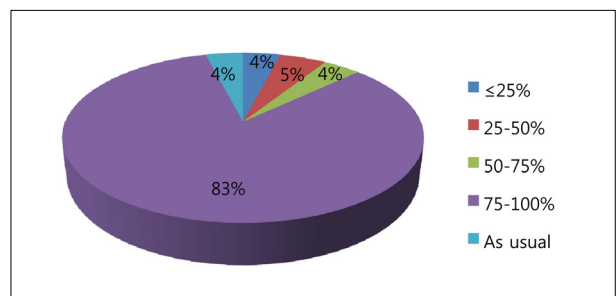


Figure 3. Patient's everyday life activities after the surgery compared to the norm.

대한 불안감(7%), 기타(이물감, 세안의 제한, 안구 운동 시 불편함 등) (6%), 충혈(5%) 순이었다(Fig. 4).

일상 생활로의 복귀 기간

수술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성취도가 수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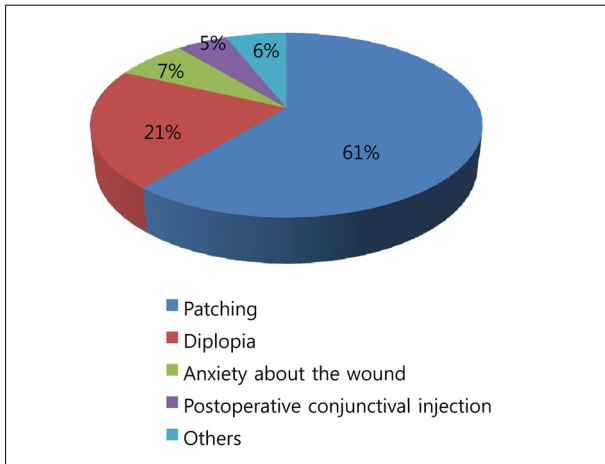


Figure 4. Causes of limited daily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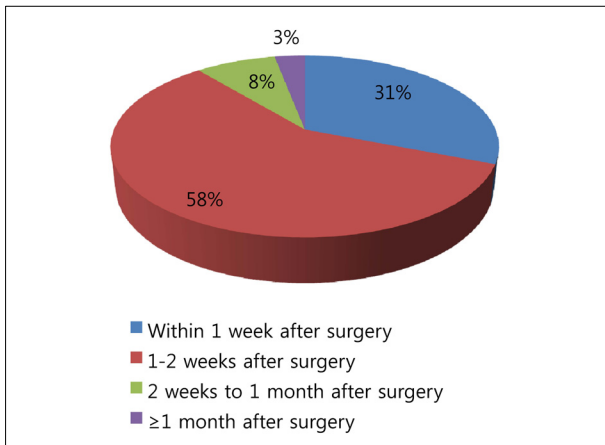


Figure 5. Time until returning to normal life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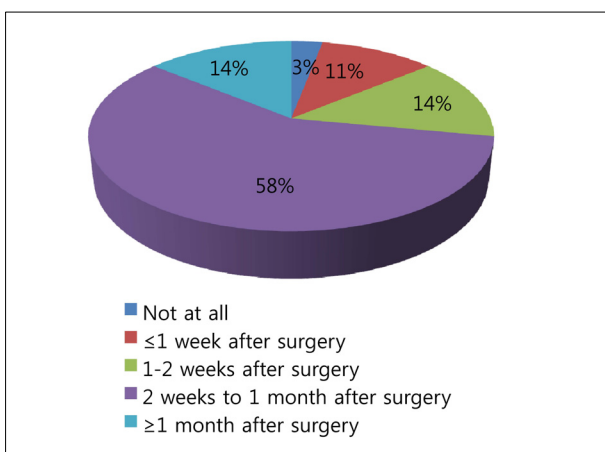


Figure 6. Period of full time patching after surgery.

과 같아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수술 후 1주에서 2주 사이에 복귀할 수 있다는 대답이 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31%에서 수술 후 1

주 이내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대답하였다(Fig. 5).

수술 후 종일가림치료 기간

수술 후 2주에서 1개월 동안 가림치료를 했다는 대답이 58%로 가장 많았으나 이는 설문을 잘 이해하지 못해 부분 가림치료 기간까지 더해서 답변한 것으로 생각한다. 1개월 이상, 1-2주, 1주 이내라는 대답이 각각 14%, 14%, 11%를 차지하였다(Fig. 6).

수술 후 가장 어려웠던 점

소아의 경우 수술 후 환아를 돌볼 때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 보호자들은 안대를 착용시키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대답이 64%로 가장 많았으며 세수나 머리감기기가 가장 힘들었다는 대답이 18%였다. 성인의 경우에도 역시 안대 착용이 가장 힘들었다는 대답이 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8%에서 세수와 머리 감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대답하였다.

고 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시 환자의 80% 이상이 그들의 사시로 인해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이는 사회생활에서 정상적인 눈맞춤을 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며 개인의 자존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직업을 갖는데 사시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으로 자기 계발을 하는 데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한다고 보고되었다.⁷⁻⁹ 반면 사시의 교정은 사시 환자에게 많은 심리사회적 이익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에 있어서 사시의 수술적 교정은 일상생활 및 타인과의 사회적인 상호 관계, 더 나아가 자아상 형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5,10}

반면 사시 수술 전후의 환자나 보호자가 느끼는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역설적으로 사시 수술 자체가 환자에게 이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사시 환자 및 보호자가 수술 전 어떤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느끼는지, 또한 수술 후 일상생활로의 복귀 과정에 어떤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77%의 환자 및 보호자가 수술 전 한 번의 수술로 사시가 완전히 교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60%의 환자 및 보호자는 사시의 재발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술 전 재발 가능성 및 재수

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충분한 설명이 수술 전 환자 및 보호자의 수술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한 번의 수술로 완치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사시 수술 자체가 수술 후 안대나 복시, 충혈, 세안의 제한 등의 이유로 사회적인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술 전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경험한 성취도의 저하는 25% 미만이었다. 따라서 사시수술이 일정 기간 동안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두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충혈 등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약간의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설명하되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시 수술 후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 모두가 수술 전 궁금해 하는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58%에서 수술 후 1주에서 2주 사이에 일상생활이 가능하였고, 31%에서는 1주 이내에 가능하였다고 하여 수술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수술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시와 안대 착용이 이러한 일상생활의 제한을 미치므로 이 문제에 대해 환자 및 보호자가 미리 인식하여 수술 후 이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대비한다면 수술 후 일상생활로의 복귀 기간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소아에 비해 성인 환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소아와 성인의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과 비교가 힘들었고 연구의 결과가 소아의 보호자의 관찰에 의존하였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술 전 재발 가능성에 대한 바른 설명이 환자 및 보호자의 수술 결과에 대한 두려움 및 한 번의 수술로 완치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시 수술 후 직장과 학교 등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수술 후 1주에서 2주 이내에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Olitsky SE, Sudesh S, Graziano A, et al. The negative psychosocial impact of strabismus in adults. J AAPOS 1999;3:209-11.
- 2) Cho YA, Lee DS, Kim EJ. Long-standing adult horizontal strabismus with early childhood onset. J Korean Ophthalmol Soc 1993;34:782-7.
- 3) Paysee EA, Steele EA, McCreery KM, et al. Age of the emergence of negative attitudes toward strabismus. J AAPOS 2001;5:361-6.
- 4) Burke JP, Leach CM, Davis H. Psychosocial implications of strabismus surgery in adults. J Pediatr Ophthalmol Strabismus 1997;34:159-64.
- 5) Satterfield D, Keltner JL, Morrison TL. Psychosocial aspects of strabismus study. Arch Ophthalmol 1993;111:1100-5.
- 6) Beauchamp GR, Black BC, Coats DK, et al. The management of strabismus in adults--III. The effects of disability. J AAPOS 2005;9:455-9.
- 7) Nelson BA, Gunton KB, Lasker JN, et al. The psychosocial aspects of strabismus in teenagers and adults and the impact of surgical correction. J AAPOS 2008;12:72-6.
- 8) Coats DK, Paysse EA, Towler AJ, Dipboye RL. Impact of large angle horizontal strabismus on ability to obtain employment. Ophthalmology 2000;107:402-5.
- 9) Goff MJ, Suhr AW, Ward JA, et al. Effect of adult strabismus on ratings of official U.S. Army photographs. J AAPOS 2006;10:400-3.
- 10) Merrill K, Satterfield D, O'Hara M. Strabismus surgery on the elderly and the effects on disability. J AAPOS 2010;14:196-8.

Appendix. The questionnaire used in this study

다음 설문은 사시 수술 전후에 환자 분의 두려움 및 일상 생활로 복귀하기까지의 어려움 등에 대한 설문지입니다. 사시 수술 전후 의료진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문지이니 정성껏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통 질문

1. 수술 후 복시는 얼마 정도 지속되었습니까?

- 1) 없었음 2) 1주 이내 3) 1-2주 4) 2주-1개월 5) 1개월 이상

2. 가림치료 기간 동안 가림치료를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25%이하 2) 25-50% 3) 50-75% 4) 75-100%

3. 수술 후 하루 종일 가림치료를 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1) 하지 않음 2) 1주 이내 3) 1-2주 4) 2주-1개월 5) 1개월 이상

4. 성취도가 떨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하나 이상 선택 가능)
1) 복시 2) 안대 착용 3) 충혈 4) 수술 부위에 대한 불안감 5) 기타
5. 수술 전 집도의 및 주치의로부터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장 두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 복시 2) 전신 마취 합병증 3) 수술 합병증 4) 재발
5) 과교정(내사시가 외사시로, 외사시가 내사시로 되는 것) 6) 기타
6. 수술 전 수술에 대한 기대치는 어떠하였습니까?
1) 한번의 수술로 완치될 것으로 기대함 2) 2회 정도의 수술을 하면 완치될 것으로 기대함
3) 3회 정도의 수술을 하면 완치될 것으로 기대함 4) 수술로 완치될 수 있다는 말을 믿기 어려웠음

소아용

7. 수술한 다음 얼마 후 유치원(어린이 집 포함) 및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1) 3일 이내 2) 3일-1주일 3) 1주-2주 4) 2주-1개월 5) 1개월 이상
8. 수술 후 가림치료 기간 동안 아이의 외출 횟수를 비교한다면?
1) 평소의 25%미만 2) 평소의 25-50%정도 3) 평소의 50-75%정도 4) 평소의 75-100%정도
5) 큰 차이 없다.
9. 수술 전과 비교하여 수술 후 학교 생활에서의 아이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다면?
1) 평소의 25%미만 2) 평소의 25-50%정도 3) 평소의 50-75%정도 4) 평소의 75-100%정도
5) 큰 차이 없다.
10. 수술 후 얼마가 지난 후 학교 생활에서 아이의 성취도가 수술 전과 같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술 후 1) 1주 이내 2) 1-2주 3) 2주-1개월 4) 1개월 이상
11. 수술 후 아이를 돌볼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 안대를 잘 안 하려고 함 2) 수술 받은 눈을 자주 비비려고 함
3) 세수 및 머리감기가 힘들 4) 자주 넘어지거나 부딪힘 5) 기타

성인용

7. 수술한 다음 얼마 후 직장 혹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1) 3일 이내 2) 3일-1주일 3) 1주-2주 4) 2주-1개월 5) 1개월 이상
8. 수술 후 가림치료 기간 동안 외출 횟수를 비교한다면?
1) 평소의 25%미만 2) 평소의 25-50%정도 3) 평소의 50-75%정도 4) 평소의 75-100%정도
5) 큰 차이 없다.
9. 수술 전과 비교하여 수술 후 직장 혹은 학교 생활에서의 자신의 성취도를 평가한다면?
1) 평소의 25%미만 2) 평소의 25-50%정도 3) 평소의 50-75%정도 4) 평소의 75-100%정도
5) 큰 차이 없다.
10. 수술 후 얼마가 지난 후 자신의 성취도(집, 학교, 직장 생활 포함)가 수술 전과 같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술 후 1) 1주 이내 2) 1-2주 3) 2주-1개월 4) 1개월 이상
11. 수술 후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 눈 가리기 2) 통증 및 이물감 3) 세수 및 머리감기가 힘들 4) 자주 넘어지거나 부딪힘
5) 기타

=ABSTRACT=

A Study of Patient Concerns and Return to Daily Life after Strabismus Surgery

Joong-Hun Kim, MD, Seung-Hyun Kim, MD, PhD, Yoonae A Cho, MD, PhD

Department of Ophthalmolog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san, Korea

Purpose: To investigate preoperative concerns and expectations of caretakers and patients who underwent strabismus surgery and the patients course of return to daily life.

Methods: Eighty-five strabismus surgery patient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We performed a questionnaire survey including 11 questions about the concerns, expectations of strabismus surgery and the course of return to daily life after surgery. In total, 25 adult patients and 60 children with their caretakers were asked to fill out the questionnaire.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77% of all patients and their caretakers expected that the strabismus would be cured after a single operation. The greatest concern before surgery was the possibility of strabismus recurrence (60%). Fifty five percent of the patients reported the use of an eye patch for 2 weeks to 1 month after surgery and 88% of them showed a 75-100% increase in performance after the operation. The most common reason for decreased performance was the use of an eye patch (61%). Most patients returned to normal daily activities within 1 to 2 weeks after surgery.

Conclusions: Proper preoperative explanation about the possibility of recurrence may reduce concerns and false expectations about surgical outcomes. It appears to take 1 to 2 weeks for patients to return to their daily lives.

J Korean Ophthalmol Soc 2012;53(3):440-445

Key Words: Concern, Return to daily life, Strabismus surgery

Address reprint requests to **Seung-Hyun Kim, MD, PhD**
Department of Ophthalmology,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123 Jeokgeum-ro, Ansan 425-707, Korea
Tel: 82-31-412-5160, Fax: 82-31-414-8930, E-mail: ansaneye@hanmail.net